

아시아항로 투입선대 최근 크게 증가

최근의 운임회복 추세에 악영향 예상

최근들어 주요 아시아 동-서항로에서의 선박부족으로 이 항로 취항선사들이 투입선박을 늘리고 있어 운임회복 기조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들어 첫 주의 아시아 동-서항로의 동향 수송능력은 전년동기(2004년 첫째 주) 25만5,000TEU에서 약 17% 증가한 29만8,000TEU를 기록했다.

또 금년 첫째 주 아시아-구주항로의 서향 수송능력은 지난해 1월 초 18만3,000TEU에서 금년 초에는 21만7,000TEU로 18%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선대증가는 이들 항로의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아시아 동-서항로의 컨테이너물동량은 2004년에 13-15% 증가하였고, Asia-to-Europe 물동량은 1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정기선사들은 2004년 피크시즌 전에 아시아-유럽항로에서 4개 루트의 서비스를 추가하였고, 이와 함께 선대의 평균 수송능력 역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된 수송능력의 일부는 북미서안 항만 적체로 인해 그 효과가 상쇄되기도 했다.

2005년 1월1일 현재, 태평양 항로의 선사들은 총 19개 루트의 서비스에 565척의 선대를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다.

이와함께 구주항로에는 50개 루트의 서비스에 433척의 컨테이너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선사들은 아시아지역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향후 점진적으로 투입선대를 확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캐나다 몬트리얼항 화물처리 12.2% 증가

캐나다 몬트리얼항이 지난 2004년에 처리한 화물은 2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관계자들은 2005년에도 이를 능가하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JOC에 따르면, 몬트리얼항의 컨테이너 총 처리량은 2004년 2,300만mt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3년 대비 12.2%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84년 2,480만 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컨테이너 화물은 2004년 1,080만톤을 기록했으며, 일반화물은 총 1,130만톤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건화물과 액체화물이 각각 600만톤 포함되어 있다.

몬트리얼 항만당국의 CEO인 Dominic Taddeo는 2005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4%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astern Ontario 인근 주요 정제회사들의 공장 가동중단으로 철강 및 석유제품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여름에 겪었던 철도 혼잡도 해결되었으며, 동 항만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의 60%는 철도로 이동되는데 CP가 85%를, CN은 15%를 담당하고 있다.